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 살펴보니

중소기업이 사원위해 지을땐 최고 6억 지원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장 어린이집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이 사원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중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높다.



11일 광주시청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즐거운 놀이시간을 갖고 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기관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 <광주시 제공>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10일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자세히 평가하고 나서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다, 보육수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하고 지원 늘려... 대체 보육수당 폐지

광주·전남 의무사업장 47곳 중 19곳만 운영

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46.2%인 12곳 뿐이다. 나머지 사업장 중 10곳(38.5%)은 보육수당이나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4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전남에서는 총 21곳의 의무설치 기업 중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3.3%인 7곳. 그리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계약을 한 사업장은 6곳(28.6%)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9월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26곳 중 실제 어린이집을 둔 곳은 46.2%인 12곳 뿐이다. 나머지 사업장 중 10곳(38.5%)은 보육수당이나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4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전남에서는 총 21곳의 의무설치 기업 중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3.3%인 7곳. 그리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계약을 한 사업장은 6곳(28.6%)이었다.

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마련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제재가 강화될 뿐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직접적 법률·제정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특례 규정을 통해 기업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

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직장 어린이집 때문에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반 용적률을 적용하되 어린이집 면적은 추가로 인정 해주거나 용적률 자체를 높여주는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이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1층에 뒤야 하는 규정도 고쳐 1~5층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원이나 용적률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원칙도 없애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장과 조리실을 함께 이용하는 길도 터져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贊 직장어린이집 확대 反

정부가 국민이 일과 보육에 모두 전념할 수 있는 묘안으로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일과 보육 양립'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하며, 내년부터 보육수당만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자 '노동'이라는 의견도 많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환영 | 국가예산 아닌 근로자 부담

▲직장어린이집도 안 짓고 보육수당만 깎는 것 아닌가=풀이 아직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둔 직장인 A씨는 현재 회사로부터 월 20만원 정도의 '보육수당'을 받고 있다. A씨가 일하는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0명을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뒀어야 하지만, 회사는 실제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들어 어린이집 설치를 미루는 대신 보육수당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년부터는 A씨도 이 같은 보육수당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육수당을 주는 기업까지 제도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도 보육수당이 최근 논란 많은 '통상임금'처럼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육수당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올해 안에 영유아보육법을 고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어린이집을 마련하거나, 위탁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직장의 보육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더구나 기업의 보육수당이 유지되면 올해 전면 확대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도 겹쳐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어린이집 운영비용 노사에 떠맡기는 것 아닌가=노동계는 직장어린이집 비용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비용을 노사에 떠맡기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편 소식이 알려지자 보육수당을 받던 많은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여전히 뒷전인 채 바뀐 법을 따르며 보육수당만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나선다해도 완공 시점까지 수당과 보육공간이 모두 없는 '공백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시설 지원비, 교사 인건비 등 직장어린이집 비용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비용을 노사에 떠맡기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직장인들은 또, 더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와 상관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해온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이번엔 공개적으로 밝힌 '보육수당과 무상보육이 충돌한다'는 입장을 근거로 보육수당 제도 폐지를 검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북리후생 차원에서 보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시설 지원비, 교사 인건비 등 직장어린이집 비용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비용을 노사에 떠맡기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후속 지원 통해 일과 가정 양립 꼭 이뤄야=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차후 보완할 문제이고, '일과 보육 양립'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 규제 완화와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직장맘' 육아 부담 덜고 일·가정 양립할수 있게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왜?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꺼내 둔 것은 회사와 가정 일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직장 여성이 출산·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조치다.

▲왜 직장 어린이집 늘리나=어린이집

의 수는 전국적으로 4만여개에 육박한다. 하지만 '직장 맘'이 퇴근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맡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이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도 길어 '직장 맘'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4.13점(5점 만점)이다. 부모협동 어린이집(4.08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3.85점)을 제치고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3.65점)과 가정 어린이

집(3.67점)의 만족도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7점보다 약 0.4점 높았다.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길고 시간연장·야간보육 비율이 높아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 사회참여율 높아질까=여성의 직장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이 결혼과 출산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결혼·출산 동향조사'를 보면, 결혼 직전에는 89.1%이던 여성의 취업률이 결

혼 직후 51.9%로 떨어졌다.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33.1%이던 기혼여성 취업률도 첫째 아이 출산 후 27.1%로 감소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부분은 아이가 공교육시설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직장도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의무 사업장의 39.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의무사업장과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높아지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alee@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분, 신축 4층, 룠,14개(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룠 16개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룠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운전역 2분, 신축 3층, 룠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 2천, 용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개 (주택있음) 매가 6억 9천만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개 (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5억 5천만

상가매매

- ☆상가 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 3천, 월 130만) 모든업종가능
- ☆상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이엘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한은행 뒤 300세대 모이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합
-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 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APT앞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옆)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장, 창고, 전시장 등

매월동 서광주역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뷰 지 전 1,620㎡(493평) 매가 7억 2천만 원 조경 개지동차관리시설, 전시장, 창고 등 투지적합

저렴한 전시장매장

주월동 상가 풍양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가 7억 9천(기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장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중앙공인중개사

♣건물매매♣

총장로 총장 파출소 인근 대지 700㎡ 건물 3,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대형 브랜드 매장 적합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11,333㎡(약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3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원
- 광산구 수완지구(5층) 보2억2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고흥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사육,정리예식장)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육)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억4천(식당,유흥노래방)
- 차령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육,전시장)
- 마북동생생낙지 도로접 895㎡ 매가11억원(식당,사육)
- 쌍촌동 운전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25억 (사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 62억원(상가)분양투자적합

• 상가건물, 내대지 구입 •

☎062-381-6001
010-3753-0033